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지구 국가인수 등 각종 제반시설과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전달하는데 앞장섰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유·무형적 가치와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집중했다.

③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다른 광역자치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필요성 피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④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자립기회 확대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강구를 위해 구성된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강원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종합계획의 심의, 장애인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구현을 강구했다.

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생계의 안정적 유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의 경제지립형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층 논의·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진흥지구 개발 방안 및 지역 현실에 부합된 폐광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 대책 강구를 했으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확대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석탄 전성기시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제2의 폐광지역 부흥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⑥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해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 재정 상황(세입·세출)을 심도있게 조사·연구·분석해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자료로 제공했고,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강원도의 재정운영의 위험성을 사전 제거하고 급박한 사회변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3대 의정방침의 실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의 행복, 강한 의회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 소통을 위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를 3대 의정방침으로 설정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충청북도



道花 : 백목련 道鳥 : 까치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고드미, 바르미
 道청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道지사 : 이시종(李始鍾)

개 관

연혁 서북으로 차령산맥과 동남으로 소백산맥의 중간에 자리 잡은 충북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땅이었다. 삼국시대 들어 중부는 백제, 남부는 신라, 북부는 고구려가 점유해 삼국 세력다툼의 각축장이 됐다.

고려 성종 때(995년) 중원도에서 예종 원년(1106년)에 처음으로 충청도로 정해진 뒤 명종 2년(1171년)에 양광도로 개칭됐다.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충청도로 불렸다.

조선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북도가 설치됐고 충주에 도청을 뒀다가 1908년 청주로 이전했다. 1946년 청주읍이 부로 승격, 1부 10군 3읍이 됐다. 1949년 청주부가 시로 바뀌었으며 1956년 충주읍과 1980년 체천읍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1990년 출장소를 설치했던 증평이 2003년 독립자치단체인 증평군으로 승격됐다. 1995년 청주시 동부출장소가 상당구로, 서부출장소가 흥덕구로 승격했다.

2012년 6월 27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 통합 결정,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2012년 7월 1일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문곡리, 행산리, 산수리, 갈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

충청북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²)	가구	인구(명)
합 계	7,407.31	669,503	1,583,952
청 주 시	940.28	336,408	831,912
충 주 시	983.56	87,463	207,913
제 천 시	883.45	59,856	136,138
보 은 군	584.25	16,147	34,296
옥 천 군	537.11	22,967	52,404
영 동 군	845.72	23,586	50,693
증 평 군	81.83	15,790	36,671
진 천 군	407.26	29,750	67,981
괴 산 군	842.44	19,620	38,787
음 성 군	520.3	43,279	96,396
단 양 군	781.11	14,637	30,761

* 주민등록 인구수 : 158만3천952명(남 : 79만8천896명, 여 : 78만5천56명)
 등록외국인 3만2천637명 포함 시 ⇨ 총161만6천589명

되고,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는 남이면 부용외천리로 명칭변경 및 편입되고 부용면을 폐지됐다.

면적·행정구역·인구 바다와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 총면적은 7천407.31km²이다. 행정구역은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4천73개 통·리, 1만8천864개 반이 있다.

인구는 2015년 12월 말 현재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161만6천589명이다. 2014년도에 비해 7천명이 증가했다.

재정

2016년 예산규모는 총 4조425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3천267억원, 특별회계 7천158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8천631억원, 세외수입 620억원, 지방교부세 5천48억원, 보조금 1조7천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천965억원이다.

중점 추진사업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영종호(영남·충청·호남) 시대 리더 충북'을 향해 힘차게 도약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소득과 인구추이를 비교해 전국을 6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충북은 최고 등급인 '성장A지역'으로 평가 받았으며, 지난해 시·도별 경제성장률 발표에서는 7.4%로 충북이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 충북은 인구, 경제 등의 지표에서 전국대비 3%라는 오명을 벗고 4%대 충북경제의 꿈을 키우며, '도민행복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가고 있다.

충북경제 전국대비 4% 도약 기반 마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ICT, 공항 및 항공정비산업 등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점하며, 민선6기 동안 수출 200억 달러, 투자유치 30조원, 일자리 40만 개, 고용률 72% 달성을 통한 충북경제 전국대비 4% 실현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수출은 152억 달러 달성으로 8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고용률은 70.3%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중국 상하이에 충북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350억원), 문화관광 특성화 시장(10개) 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24개) 육성, 사회적 기업(15개소)과 마을기업(6개소)을 신규 지정하는 등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도민이 모두 행복한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 노력 융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등 우수 연구기관·기업(8개소)을 유치하고 바이오메디컬 시설(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등)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신약개발의 최종 출구인 임상시험센터 건립 설계비를 국비로 확보해 첨복단지 국가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340,058 m²)과 제2생명과학단지 분양을 통해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울러,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통

2016년도 충청북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4,042,521	3,326,687	715,834
지방세수입	863,100	863,100	0
보통세	686,100	686,100	-
취득세	429,100	429,100	-
등록면허세	38,500	38,500	-
지방소비세	218,500	218,500	-
목적세	171,000	171,000	-
지역자원시설세	30,000	30,000	-
지방교육세	141,000	141,000	-
2014년도 수입	6,000	6,000	-
세외수입	88,483	61,953	26,530
경상적 세외수입	26,945	17,588	9,357
임시적 세외수입	61,538	44,365	17,173
지방교부세	519,000	504,750	14,250
보조금	1,871,445	1,700,340	171,105
지방채	120,000	0	120,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0,493	196,544	383,949
보전수입 등	228,300	84,200	144,100
내부거래	352,193	112,344	239,849

2016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4,042,521	3,326,687	715,834
일반공공행정	573,351	370,718	202,633
공공질서 및 안전	311,108	262,396	48,712
교육	177,671	177,671	-
문화 및 관광	172,908	172,908	-
환경보호	218,866	218,866	-
사회복지	1,295,009	1,065,866	229,143
보건	60,445	60,445	-
농림해양수산	444,882	432,191	12,691
산업·중소기업	87,513	87,513	-
수송 및 교통	151,570	147,030	4,540
국도 및 지역개발	136,114	108,225	27,889
예비비	149,187	57,985	91,202
기타	263,897	164,873	99,024

해 2013화장품 엑스포 개최시 대비 170%(1천85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착공(2015년 6월)을 통해 화장품산업 육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국제행사승인을 통해 명실공히 바이오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버토피아 충북,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복지 정착 전국적 모범복지 사례로 인정받은 '9988 행복나눔미' 사업의 정착과

함께 새롭게 실시한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은 정부3.0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다시 한 번 실버토피아 충북의 앞서가는 복지정책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찾아가는 취약계층 법률상담터, 중증장애인 일감지원,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시책을 펼치고, 충북 미래 여성 플라자 착공과 9988 행복나누미 운영(210명, 3천 개 경로당), 9988 행복지킴이 운영(6천890명, 4천373개 마을) 등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 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균형발전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인 초정-미원, 미원-운암, 보은-영동 구간의 도로는 국·도비를 집중 투자해 설계 및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음성-제천 구간이 완전 개통됐고,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는 공사비 3천720억원을 확보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호남고속철도,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의 추진으로 철도친화도로 자리매김했으며, 충북혁신도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5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는 등 중부권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심야버스와 줄·퇴근버스 운행으로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소통에도 기여했다.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충북유교 문화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진흥 기반을 구축했으며,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공연 확대(70회)로 문화격차를 해소했다. 이야기산업 허브화를 위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해 창작 집필 시설 인프라를 마련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청주공항 이용객 연 200만 명 시대 개막 등 관광 분야에 두각을 보였다. 청남대는 누적관광객 860만 명을 돌파했으며,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도 완공해 대통령 테마 문화 명소로 거듭났다.

산 업

경제활동 인구 2015년 12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 133만1천명 가운데 63.9%인 85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82만8천 명이 취업자로 고용률(OECD 기준 15~64세) 68.7%(연평균 68.4%)이고, 실업률은 2.6%로 전국 평균 실업률(3.6%)보다 1.0%p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 취업인구는 농림어업 6만7천 명, 광공업 18만8천 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56만7천 명이다.

기업·투자유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자 유치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산업단지 절차 획기적 간소화 등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공격적이고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민선 6기에 총 1천200개 기업에 9조6천33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15년 1년간 817개 기업에 6조1천53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농업 2015년 말 기준 농가 수는 7만6천436가구로 도내 전체 65만6천321가구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농가 112만 776가구에서는 6.8%이다. 농업인구는 도 전체인구의 11.7%인

18만7천752명이며 전국(275만1천792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이다. 경지면적은 논 4만5천ha, 밭 6만7천ha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46ha로 전국 평균 1.49ha보다 적다.

축산업 2015년 말 현재 한·육우 19만6천982마리, 젖소 2만 1천673마리, 돼지 59만2천806마리, 닭 1천260만2천541마리, 오리 150만8천148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광업 2015년 10월 말 현재 가동 중인 광산은 금속광산 8개, 비금속광산 57개로 총 65개이며 654명이 종사하고 있다. 광물 생산실적을 보면 납석 9만300t(전국비중 20.6%), 활석 3천 672t(전국비중 73.2%), 석회석 1천937만t(전국비중 25.2%)이다.

사 회

주택 2015년 말 현재 주택 수는 총 67만3천722채로 주택보급률은 110.3%에 이르고 있다. 주거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9만 4천655호, 아파트 29만9천871호, 연립주택 2만31호, 다세대주택 1만3천23호, 다가구주택 1만6천142호다. 2014년에 단독주택 2천97호, 아파트 1만9천386호 등 4만1천375호의 주택이 건설됐다.

교통 2015년 말 현재 등록차량은 73만69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4만5천983대, 승합차 3만3천274대, 화물차 14만7천 597대, 특수차 3천215대다.

정보통신 2015년 말 현재 통신망사업자의 주요 통신망 시설은 청주-서울 인터넷 백본망 10G(Giga bps) 56회선, 청주-시·군 10G(Giga bps) 16회선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도내 1만여 곳에 WiFi망을 설치해 도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도민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재래시장, 복지시설, 보건진료소 등 478개소에 공공WiFi망을 구축했다. 또한 정보통신인프라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주민들이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2010년부터 2015년 말 현재까지 11개 시·군 981개 마을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했으며, 2016년까지 8개시·군 162개 마을에 추가로 구축해 도시와 농촌 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위생 2015년 말 현재 종합병원 12곳, 일반병원 37곳, 한방병원 4곳, 치과병원 2곳, 요양·정신병원 43곳이 있다. 또 의원 790곳, 치과의원 366곳, 한의원 370곳, 부속의원 10곳, 조산원 1곳, 보건소 14곳, 보건지소 96곳, 건강생활지원센터 1곳, 보건진료소 158곳,

약국 654곳, 의약품도매상 48곳, 약업사 19곳, 한약업사 68곳, 매약상 8곳이 있다.

문 화

문화재 2015년 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2점, 보물 85점, 사적 19곳, 천연기념물 23점, 명승 10곳, 중요민속자료 21점, 중요무형문화재 3점이 있다. 이외에 등록문화재가 24점이

있다. 도 지정문화재로 유형문화재 304점, 무형문화재 27점, 기념물 130점, 민속문화재 20점, 문화재 자료 84점이 있다.

문화예술행사 충북예술제, 충북민속예술제, 청주 예술제, 충주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제천 의병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보은 오장환 문학제, 옥천 지용제, 영동 난계국악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진천 생거진천문화축제, 괴산 예술제, 음성 설성 문화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등이 열린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 장〉 이언구

〈부의장〉 김봉희, 박종규

〈정당별 의석〉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1명이다.

의정활동 2015년에는 6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 등 총 8회 116일간에 걸쳐 도의회를 운영했다. 회기 중에는 도정보고 청취 3회, 대집행부질문 8회 15명, 행정사무감사, 조례·예산·건의안 등 212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수시로 연찬회와 현지 점검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연안을 해결하기 위해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우 반대 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결의, 충청북도 국회의원 의석 수 축소 반대 건의안,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조기착공 촉구 건의 등 7건의 대정부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015년 11월 13~24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106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고, 255건에 대해 건의 및 촉구를 했다.

북부에 거점을 두고 점차 남하, 舊마한지역을 통일하고 이 고장을 중심으로 백제를 형성했는데, 그 후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공존하다 신라가 唐과 힘을 합쳐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이곳에 도독부를 설치한 뒤에는 우주라 칭했다.

통일신라가 후백제, 후고구려로 분열되어 936년에 고려시대에 다시 통합된 뒤에는 하남도라 일컬어졌으며, 공민왕 5년에 충청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인조 때는 공청도, 정조 원년에는 홍충도로 불렸으며, 순조 34년(1834년)에 다시 충청도로 환원됐고, 고종 33년(1896년) 남북도로 나누어졌다.

1932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겨졌고, 1935년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됐다가 정부의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1949년 8월 15일을 기해 대전시로 개칭돼 도는 1시 14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63년 천안읍이 시로, 당진면과 대천면이 읍으로 승격, 1973년 신탄진, 유성, 삽교, 합덕, 태안, 성환 등 6개면이 읍으로 승격, 1983년 대덕군, 유성읍, 회덕읍 일원과 구죽면, 진잠면, 탄동면 일부가 대전시로, 보령군 오천면 삼시도리 일부가 서산군 안면읍으로,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와 홍성군 결성면 외리가 홍성군 갈산면으로, 천원군 풍세면 구룡리가 천안시로 각각 편입됐다.

1986년 공주, 대천,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고 보령군 미산면 성주출장소가 성주면으로, 안면읍 고남출장소가 고남면으로 각각 승격됐다.

1987년 1월 1일 대전시와 대덕군이 대전직할시로 분리됐고, 서산군 서산읍이 시로 승격됐으며, 1989년 1월 1일에는 서산군 내의 태안읍,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을 분리해 태안군으로 편입시켰다. 또 1990년 2월 27일 군사·문화거점도시로 발돋움할 논산군 두마면 일원에 계룡출장소가 신설됐고, 4월 1일에는 아산군 염치면이 염치읍으로 승격됐다.

1990년 12월 31일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개칭됐으며, 1991년 11월 30일 대신면이 대신읍으로 승격됐고, 1994년 7월 1일 천안시 성춘동이 성정 1동과 2동으로 분동됐다.

1995년 1월 1일 공주시·군을 공주시로, 대전시와 보령군을 보령시로, 온양시와 아산군을 아산시로, 서산시·군을 서산시로 각각 통합 개칭했으며, 3월 1일에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의면 심종리 일원을 연기군으로 편입시키고,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을 충청북도로 편입시켰다.

또한 1995년 3월 1일에 공주시 유구면과 보령시 웅천면이 각각 유구읍과 웅천읍으로 승격됐고, 1995년 5월 10일 천안시·군의 천안시 통합에 이어 1996년 3월 1일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 2002년 1월 1일 천안시 직산면과 목천면이 읍으로 승격, 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 일원이 계룡시로 승격, 2010년 1월 1일 당진군 송악면이 송악읍으로 각각 승격됐으며, 2012년 1월 1일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승격했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해 연기군은 세종시로 편입됐으며 또한, 충남도청은 2013년 1월 1일 대전광역시에서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로 이전했다.

면적·행정구역 2015년 12월 말 현재 행정구역은 8시 7군 24읍 137면 46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2천94 법정동·리와 5천525 행정동·리, 2만4천247개의 반이 있다.



道花 : 국화 道鳥 : 원앙

道木 : 능수버들 캐릭터 : 충청이와 충나미

도청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도지사 : 안희정(安熙正)



개관

연혁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요람지인 충청남도는 원래 마한의 북방경계였으며, 삼한시대 최고의 문화 중심지였던 월지국이 지금의 천안에 자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18년에 북부여 온조가 남으로 내려와 충청남도 동